

일본, 日食 보급확대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

일본 농림수산성은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확대를 위해 일식을 통한 홍보 및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일본요리 요리사를 대상으로 하는 “기능인정제도” 신설과, 쌀·된장 등 일본의 식재료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해외 일식당을 지정하여 레스토랑에 로고 등을 부착하게 하는 “식문화서포터”제도를 '16년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또한 일본 국내에서 유명한 일본인 요리사 등을 대상으로 임명해온 “일식 보급 친선 대사”제도를 올해 안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도 확대할 계획으로, 해외에서의 일식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통해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 제도 도입의 배경

- 농림수산성의 추정에 따르면 '13년 3월 시점에서 해외 일식당은 약 5만 5000점포로 '10년에 비해 약 2만 5000점 증가했다.
- 그러나, 인터넷 등에서 얻은 정보를 참고로 하여 전통일식과는 다른 맛과 모양의 요리인 경우나 다른 국가의 요리를 일식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많았다.
- 이러한 상황은 일식의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농림수산성은 지난해 민간의 지식인과 협의회를 설립하고 올바른 일식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제도적인 검토를 진행 해왔다.

■ 日食 기능인정제도란

- 인정대상은 해외의 일식 요리사들이며, 정부가 일식 요리사의 인정기준 지침을 만들고 민간의 일식 관계단체 등에서 그 기준을 토대로 검정시험 등을 시행한다.
- 국내외에서 연수 및 강습을 실시하여 일식에 대한 조리기술, 위생지식, 식문화 등에 대한 일정한 지식을 가진 요리사들에게 학점 등을 부여할 방침이다.

■ 식문화 서포터 제도란

- 식문화 서포터 제도는 일식의 보급단체, 식품업체, 물류업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단체를 설립 할 예정이다.
- 쌀, 된장, 일본산 소고기 등을 사용하는 해외 일식당에 통일된 로고 스티커나 간판을 매장에 설치한다.
- 이외에 일본의 식품 메이커나 농산물 생산단체에도 이러한 일식당 정보를 제공여 일본산 식재료의 수출확대를 도모한다.

■ 일식 보급 친선 대사의 확산

☞ 일식 보급 친선 대사란

- 일본농림수산성이 일식과 일본 식문화의 매력을 국내외에 효율적으로 전파, 홍보 하기 위하여 “일식 보급의 특별 친선대사 및 일식 보급의 친선대사 설치 요강”에 따라 “화”가 가지는 따뜻함, 그윽함 등의 이미지를 살려, 일식·식문화 매력 전파의 광고탑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식 보급 특별 친선대사’**로 임명
- 또한 일식·식문화에 관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외의 일식 관계자 등의 상담에 친절히 응해 일식·식문화의 보급에 정확한 조언을 할 일식 관계자 등을 **‘일식 보급 친선대사’**로 임명하고 각종 언론나 이벤트 등을 통해 보다 폭넓게 일식·식문화의 매력을 전파하고 있음
- * 특별 친선대사에는 `15년 2월에 여배우 단레이씨가 임명되어, 친선대사는 현재까지 일식 요리사 및 요리 학교 이사장 등 13명(모두 일본인)이 임명되었음
(출처: 일본 농림수산청)



〈단레이씨 임명식 모습〉

- 해외의 일식 팬을 늘리고 일본산 농산물의 수출 촉진을 위해 농림수산성은 유명한 요리사들을 대상으로 임명해 온 “일식 보급 친선 대사”를 올해 안에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넓힐 계획이다.
- 최종적으로는 해외에서 약 100명 규모의 일식 보급 친선대사 임명을 예상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 적어도 1명 이상의 배치를 목표로 한다.
- 세계의 외식 등의 음식시장 규모는 향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일본정부가 공인인 직함을 가지고 일식홍보를 함으로써 일본산 식재료 사용 확대를 도모한다는 전략이다.
- 새로운 임명 대상자는 일식 요리교실 개최 등 일식의 보급에 노력하고 있는 해외 거주 외국인이나 일본인이며, 앞으로 외무성과 연계하여 재외공관이 친선대사의 후보를 추천할 예정이다.

(출처:일본농업신문)

■ 시사점

- 한류 붐의 영향으로 최근 10년간 일본에는 다양한 한식 및 한국식품이 전파되었으나 일본에서 판매되는 김치의 약 85%가 일본산인 점을 고려할 때 일본에서 만든 한국풍 상품 및 요리와 오리지널 한식 및 한국식품과의 차별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 한국도 한식 세계화 사업 등을 통하여 한식문화 전파나 한국식품의 브랜드화, 해외 현지인들에의 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한다.